

의식의 흐름 소설의 위치와 문제점

—『막간』 *Between the Acts*을 중심으로—

朴 熙 鎭

I

의식의 흐름 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소설이 태어난지도 어언 반세기가 지났다. 탄생 당시에 이 형태의 소설이 독자에게 안겨 주었던 경악과 거부감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이 장르의 소설에 관한 시시비비는 좀처럼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비의 강도(強度)는 점차 약해져가고 있다. 그러나 완전히 꺼지지 않은 문화구에서 연기가 나고 이따금 작은 불뚱도 튀드시 아직도 의식의 흐름 소설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세기여(余)의 세월이 결코 긴 세월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시점에서 금세기 초에 탄생한 이 소설의 위치와 중요한 문제점들을 중간 점검해 보는 일은 나름대로 가치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영국의 작가 버지니아 울프 Virginia Woolf(1882~1941)는 의식의 흐름 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소설을 탄생시킨 주역의 한 사람이다. 그녀는 당시의 중요한 작가들(웰즈 H.G. Wells, 베넬 Arnold Bennett, 걸즈워드 John Galsworthy 등)의 소설작법에 반기를 높이 치켜 들고 실험에 실험을 거듭했다. 이러한 작가의 아홉번째 수필(마지막 작품)인 『막간』 *Between the Acts**은 물론 의식의 흐름 소설이고, 극도로 세련된 작품이다. 이 글에서는 이 소설을 집중 고찰함으로써 의식의 흐름 소설의 현재의 위치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Woolf는 1915년에 『출항』 *The Voyage Out*을 출간함으로써 소설가의 첫걸음을 내디딘 후 두번째 작품으로는 『밤과 낮』 *Night and Day*을 1919년에 내놓았는데, 이 두 작품은 적어도 피상적인 면에서는 전통적인 소설양식의 테두리안에 드는 소설들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 후인 1922년에 발간된 『제이콥의 방』 *Jacob's Room*에서는 작가가 의식적으로 주제와 테크닉에서 본격적인 실험을 하고 있다. 이와같은 실험단계를 거쳐 1925년에 그녀는 전형적인 의식의 흐름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수작으로 꼽히는 『델러웨이 부인』 *Mrs. Dalloway*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때쯤 해서는 이미 '의식의 흐름 테크닉'이라는 것은 시나 소설에서 이따금 볼 수 있는 현상이 되어 있었다. 제임스 조이스 James Joyce의 『율리시즈』 *Ulysses*와 엘리엇 T.S. Eliot의 「황무지」 *The Waste Land*가 1922년에 출간된 것을 상기하면 이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927년에는 많은 비평가들이 Woolf의 대표작이라고 일컫고, 의식의 흐름 소설 가운데서 금자탑과 같은 작품이라고 칭송되는 『등대로』 *To the Lighthouse***가 출간되었다. 그러나 심지어는 이 작품에 대해서도 몇몇 비평가는 불만을 표시하고 이 수법을 구사한 작품의 한

이 논문은 1986년도 자유과제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이후로 *Between the Acts*는 BTA로 표기하겠음.

** 이후로 *To the Lighthouse*는 Lighthouse로 표기하겠음.

계성 내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이러한 소설이 소위 ‘잣잔속의 폭풍우’를 다루는데는 효과적일런지 모르지만 실제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반 중요한 사건들을 배제하고 인간의 내면세계만 천착하고 있어서 작품에 활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Woolf는 이듬해인 1928년에 소설이라기 보다는 환타지라고 할 수 있는 가벼운 터치의 작품 『올란도』 *Orlando*를 내놓았다. 이 작품은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소설로 취급하지만 전기로 분류하는 비평가도 있다. 이 작품은 물론 전통적인 소설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전형적인 의식의 흐름 소설이라고 할 수도 없는 작품인데, 대단한 활력을 지니고 있어서 이채롭다.

본격적인 의식의 흐름 소설을 쓰고 나서는 Woolf가 지병인 정신질환에 시달렸던가,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에세이나 평론, 아니면 *Orlando*와 같은 가벼운 터치의 작품을 쓰곤 했다는 사실이 의식의 흐름 소설의 또다른 문제점인 난해성에 한줄기 빛을 던져준다고 생각한다. 즉 흔히 지적되고 있는 의식의 흐름 소설의 난해성과 작가가 창작과정에서 겪는 고뇌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독자가 느끼는 난해성과 작가가 겪는 극심한 고뇌는 모두 이러한 형태의 소설이 비록 산문으로 쓰여지기는 하지만 대단히 시적이라는 사실에서 연유한다. 그렇다면 이 난해성은 절대로 난해성을 위한 난해성이 아니고, 시적인 소설을 읽기 위해서 작가와 독자가 함께 감내해야하는 문제점 아닌 문제점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1931년에는 또다시 많은 논란의 대상이된 『파도』 *The Waves*를 내놓았는데, 이 작품은 의식의 흐름 수법이 극에 달한 양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이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작가가 다음 작품인 『세월』 *The Years, 1937*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의 작품을 썼다는 사실은 순수한 의식의 흐름 소설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사후 출판된 Woolf의 마지막 소설 *BTA*는 1941년에 출간되었다. 이 작품에서 그녀는 평생토록 여러가지 실험을 해본 후에 그녀의 목적과 재능에 가장 잘 들어맞는 방법을 찾아내어 그것을 썼음직하다. 따라서 이 작품의 연구는 과연 어떤 방법이 그녀가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었는가 하는 사실은 물론이러니와 이 작품에 이르러서는 의식의 흐름 소설의 문제점들이 어느정도 해결 내지 보완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마저 갖게 한다. 그렇다면 이 작품을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의식의 흐름 소설이 현대 소설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와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점검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불행히도 작가의 수정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출판된 작품이지만 프라이 Frye는 *BTA*를 Woolf의 작품가운데서 “가장 심오한” “the most profound” 작품이라고 칭찬하고 있으며,¹⁾ 무디 Moody와 같은 비평가는 Woolf의 아홉개의 소설가운데서 세계의 수작을 뽑아 낸다면 *Lighthouse, The Waves, 그리고 BTA*라고 하면서, 이 셋 가운데서도 *BTA*는 앞의 두 작품보다 더 성숙한 작품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²⁾ 뉘어 Muir도 이 작품을 Woolf의 소설가운데서 가장 야심적이고 가장 완벽한 작품가운데 하나로 간주한다.³⁾ Woolf 자신

1) Northrop Frye, *Anatomy of Criticism: Four Essay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p.61.

2) A.D. Moody, *Virginia Woolf* (New York: Grove Press, Inc., 1963), p.84.

3) Edwin Muir, *The Listener*, July 24, 1941.

도 이 작품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나는 이 작품에 대해서는 약간 자신이 있다. 이 작품은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한 흥미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또한 이 소설이 다른 소설들보다 훨씬 더 핵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작품에서는 다른 작품들에서 보다 불필요한 부분을 더 많이 제거시켰다. 따라서 다른 작품들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작품이 되었고, 한심한 작품인 『세월』보다는 확실히 더 신선한 작품이다.

I am a little triumphant about the book. I think its an interesting attempt in a new method. I think its more quintessential than the others. More milk skimmed off. A richer pot, certainly a fresher than that misery *The Years*.⁴⁾

1938년 1월 초순 Woolf는 사회과학 성격의 팜플렛인 『3기니』 *Three Guineas*를 마무리짓고 있었고, 로저 프라이 Roger Fry의 전기글을 쓰고 있는 중이었다. 1939년 4월 18일에는 “과거의 스케치” “A Sketch of the Past”라는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Fry의 전기글을 쓰는 작업에서 야기되는 긴장에서 헤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소설가로서의 Woolf는 손이 비어있는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늘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또 하나의 소설을 구상해 나가고 있었다. 드디어 1938년 4월 26일에 그녀는 일기에 *BTA*를 상세하게 스케치하고 있는데, 이 스케치는 다분히 *Orlando*를 쓸 때의 무드를 연상시킨다.

1938년 말경에 Woolf는 이 소설을 반쯤 썼다. 그러나 이 소설은 완성되기까지 유난히 여러번 중단되는데, 그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세계 제 2차 대전이었다. 세계 대전은 물리적으로 집필을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내용에 심오한 영향을 미쳤을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1941년 2월 26일에 이 작품은 완성됐고, 같은 해 3월 28일에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녀의 다른 소설들도 그러했지만 이 작품의 제목도 몇번 바뀌었고, 이 제목들이 모두 작품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물론이다. 첫번째 제목은 『포인즈 홀』 *Pointz Hall* 이었고, 두번째 제목은 『야외극』 *The Pageant*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채택된 것이 『막간』 *BTA*이었다. 이 작품의 초고를 끝내고, 바로 그 순간부터 『어논』 *Anon*이라는 다음 작품을 구상하고 있었다.

II

이른바 상징적 우의소설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어느 여름날 밤이었다. 그들은 창문들이 정원쪽으로 열려있는 큰 방에서 하수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It was a summer's night and they were talking, in the big room with the windows open to the garden, about the cesspool. (p.7)

때는 어느 여름날 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1939년 6월의 어느날 밤이다. 장소는 어느 시골 마을의 유서깊은 저택 Pointz Hall이라는 곳이다. 작가가 런던과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유구한 역사가 한 눈에 보이는 시골 전원엔 이 상징적 우의소설의 무대를 설정한 것은

4) Anne Olivier Bell (Ed.), *The Diary of Virginia Woolf* Vol. V. (London: The Hogarth Press, 1964).

주목을 요한다.

주요 등장인물은 이 저택의 주인인 바솔로뮤 올리버氏 Mr. Bartholomew Oliver, 그의 누이동생 루시 스와이던 부인 Mrs. Lucy Swithin, 그의 아들 자일즈 Giles, 며느리 이사벨라 Isabella, 방문객 만리자 부인 Mrs. Manresa과 윌리엄 다퀴 William Dodge, 그리고 야외극의 저자이며 연출가인 라 트로우브 양 Miss La Trobe 등이다. 이와같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뚜렷한 주인공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특정한 인물의 내면세계를 천착하지 않고, 여럿 인물의 의식세계를 스쳐 지나감으로써 보편적인 진실, 즉 작가가 그녀의 일기에서 밝힌대로 “나” “I”가 아닌 “우리” “We”의 세계를 추구해 나가고 있는 것⁵⁾을 알 수 있다.

Woolf의 다른 소설들 그리고 다른 의식의 흐름 소설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소설에서도 플롯은 전혀 대수롭지 않다. 이 소설에 표명된 플롯에 관한 작가 자신의 생각을 인용해 보는 것이 이 소설의 플롯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의 인용문은 이 소설에 등장하는 야외극 가운데서 엘리자베스 조(潮)를 다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자 Isa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묘사한 것인데 다분히 Woolf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플롯이 문제가 되는가?플롯이란 감정을 유발시키기 위해 존재할 뿐이지.....굳이 플롯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어. 라 트로우브 양이 이 대목을 중간에서 잘라버린 것은 플롯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었을까?

플롯에 관해서 신경쓰지 말라, 플롯은 아무것도 아니다.

Did the plot matter?...The plot was only there to beget emotion.... There was no need to puzzle out the plot. Perhaps Miss La Trobe meant that when she cut this knot in the center? Don't bother about the plot: the plot's nothing. (p.109)

이 소설의 플롯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다. 등장인물들이 Pointz Hall의 테라스에서 7년째 연례행사로 공연되는 야외극을 구경하고, 이 극이 끝나면 다시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들의 일상이란 구체적으로는 잠자리에 드는 것을 말한다. 이 소설에는 장(chapter)의 구분도 없이, 이 장면 저 장면이 잠깐씩 비쳐 지는데, 장면들 사이에 여백이 있어서 구획이 지어지고 있을 따름이다.

A. 세계의 상극

뚜렷한 주인공도 없고, 복잡한 플롯도 없는 소설이지만 자세히 드러다보면 우리의 삶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세가지 상극들이 그 모습을 시적으로 들어낸다. 감성과 이성의 대립, 사랑과 미움의 교차, 문명과 자연의 대치가 그것이다. 이것들을 조화시키고 수용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Woolf가 이 작품에서 어떻게 이 세가지 상극을 제시하고, 또 어떻게 이것들을 조화시키고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합리주의와 신앙

작품안에 여기저기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를 종합해 볼 것 같으면 바아트 Bart와

5) *Ibid.*, Tudesday 26 April 1938, p.135.

루시 Lucy는 둘이 다 70이 넘은 노인들이다. Mr. Oliver는 인도에서 오랜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은퇴했고, Mrs. Swithin은 성장한 아들이 둘이 있는 과부로서 오빠한테 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과부는 Woolf가 그녀의 작품에 자주 등장시켜서(백치도 마찬가지임) 작품의 분위기를 회색으로 만드는 장비중의 하나이다.

상징주의 전통에 입각해서 쓴 이 작품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제목부터 시작해서 인물, 사건, 심지어는 장소까지 모두 상징인 것이다. 이리하여 Mr. Oliver 그리고 그의 세살 손아래 여동생 Mrs. Swithin은 구체적인 인물이라기 보다는 상징적 존재로 보는 것이 작품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Lighthouse*에서 램지 부인 Mrs. Ramsay은 감성을, 램지 씨 Mr. Ramsay는 이성을 상징했던 것과 같이 이 남매도 합리주의와 신앙의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대화는 과학의 세계와 종교의 세계의 대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야외극이 공연되는 날 비가 올까봐 걱정하다가 둘이서 결론적으로 주고 받는 말이다.

“무어라고 확실히 말하기가 힘들어요. 비가 오려나 봐요. 기도하는 수 밖에 없지요.”라고 덧붙여 말하고 그녀는 그녀의 십자가를 만지작 거렸다.

“우산을 준비해야지,”하고 그녀의 오빠가 말했다.

“It’s very unsettled. It’ll rain, I’m afraid. We can only pray,” she added and fingered her crucifix.

“And provide umbrellas,” said her brother. (p.31)

*Lighthouse*도 비에 관한 대화로 시작될 뿐만 아니라 이 대화가 대단히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던 사실과 위의 대화를 연결지어서 이해해야할 것이다. Woolf는 다음과 같이 객관적인 서술양식도 동원해서 두 세계의 대극성을 표명한다.

그녀가 보는 것은 그가 보지 못했고, 그가 보는 것은 그녀가 보지 못했고...매사가 끝없이 이런 식이었다.

What she saw he didn’t; what he saw she didn’t and so on *ad infinitum*. (p.33)

다음은 Mrs. Ramsay의 비정확성, 즉 과학세계의 화신인 Mr. Ramsay가 극도로 혐오한 그녀의 과장벽과 Mr. Ramsay의 지나친 정확성을 상기시킨다.

“우리는 정말 바다로부터 1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나요?” 그녀는 몸을 돌리며 물었다.

“35마일 밖에 안돼” 그녀의 시아버지는 마치 그가 호주머니에서 줄자를 꺼내 정확하게 재어 보거나 한드시 말했다.

“Are we really,” she said, turning round, “a hundred miles from the sea?”

“Thirty-five only,” her father-in-law said, as if he had whipped a tape measure from his pocket and measured it exactly. (p.38)

이렇듯 대조적인 두 인물을 등장시켜서 작가가 하고 있는 일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다. 즉 감성과 이성의 세계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서는 안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두 세계의 조화를 주장하면서도 작가가 과학 내지 문명을 대변하는 Mr. Oliver의 세계를 배격하고, 감성 내지 자연을 대변하는 Mrs. Swithin의 세계를 옹호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또한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작가가 옹호하고 나서는 세계가 든든한 기반위에서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작가는 상징적으로 섬세하게 표현한다. 우선 Mrs. Swithin은 70이 넘는 노파이고 게다가 과부이며, 약간 옷웃팡스럽고, 썬티멘탈하고, 어리석은 인물로 그려져 있다. 이 사실이 작품에 미존이 있는듯 하면서도 비관적인 색채가 짙게 드리우게 하는 요인이 된다. *Lighthouse*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감성세계의 대변자인 Mrs. Ramsay를 성녀의 이미지로 그리면서도, 근시안이라고 함으로써 상징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을 시사하고 과학적이거나 실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터무니없을 정도로 무지한 것으로 그려 놓았다.

Mrs. Swithin은 내세의 존재도 믿고, 타인들과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무생물과도 하나됨을 노킬 수 있는 존재로 그렸다. 이 점에서는 *Lighthouse*의 Mrs. Ramsay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우리도 여러가지 다른 방법으로 살아 남는다고 나는 생각해요, 아니 나는 그렇기를 바래요,” 하고 그녀는 중얼거렸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억속에 살아 남고, ...우리는 사물들속에도 살아 남아요.”

“But we have other lives, I think, I hope,” she murmured. “We live in others,... We live in things.” (p.86)

또한 그녀는 인간의 삶을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빅토리아 조 사람들,” 스와이딘 부인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그녀 특유의 기이한 미소를 약간 지어 보이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는 생각 안해. 단지 너와 나 그리고 윌리엄이 복장만 달랐을 뿐이지”하고 말했다.

“The Victorians,” Mrs. Swithin mused. “I don’t believe” she said with her odd little smile, “that there ever were such people. Only you and me and William dressed differently.” (p.203)

Mrs. Swithin은 소위 분리주의자(separatist)가 아니고 통합주의자(unifier)인 것이다.

하나님은 평화이고, 사랑이시라고 그녀는 생각하고 있다고 그는 추측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통합주의자였고 그는 분리주의자였으니까.

She was thinking, he supposed, God is peace. God is love. For she belonged to the unifiers; he to the separatists. (p.140)

따라서 Mrs. Swithin이 읽고 있는 책이 『세계사 개설』 *The Outline of History*(H.G. Wells의 저서 1920)인 것도 의미심장하다고 하겠다.

Mr. Oliver와 Mrs. Swithin으로 상징된 두 부류의 인간들 가운데서 삶에 대한 신비스러운 비존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Mrs. Swithin 부류임을 작가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극도로 대조적인 두 세계가 작품의 말미에 다음과 같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는 이성의 횃불을 그것이 어두운 동굴속에서 완전히 꺼질때까지 들고 갈 것이다. 그녀는 아침마다 무릎을 꿇고 그녀의 비존을 보호했다. 밤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나무들을 바라다 보았다. 그리고나서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이 되면 한 때의 새들이 노래를 불러서 그녀를 깨웠다.

He would carry the torch of reason till it went out in the darkness of the cave. For herself, every morning, kneeling, she protected her vision. Every night she opened the window and looked at leaves against the sky. Then slept. Then the random ribbons of birds' voices woke

her. (p.240)

위의 인용문에서 작가는 이성의 햇불을 끝까지 떠받드는 과학 내지 문명 신봉자의 암담한 미래를 경고함과 동시에 우리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비존을 소중히 간직하고 살아가야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2. 사랑과 미움

Mr. Oliver의 머누리 Isabella는 39세의 로맨틱한 중년 여인으로서, 조지 George라는 여섯살난 아들과 아직 유모차를 타고 있는 코라 Cora라는 딸이 있고, 잘생긴 남편 Giles와 살고 있는 다복해 보이는 여인이다. 그러나 Isa를 자세히 드러다보면 로맨틱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감수성이 예민한 탓인지 전혀 행복하지 않다. 그녀는 단조로운 일상속에서 질식감을 느끼고, 현실과 이상의 괴리때문에 괴로워하고, 현실에서 심한 좌절감을 느끼고 방황하고 있다. Isa의 나이가 1939년에서 따온 39세라는 것도 흥미로우며, 또한 그녀의 나이는 이 시기가 부과하는 암울한 의미를 상기시키기도 한다.

또한 이 작품 전체가 대단히 시적이지만 Isa는 작가가 유난히 풍부한 시적 상징을 써서 묘사했다. 어찌면 그녀는 꿈과 현실사이에 가로놓인 심연의 깊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하기 때문에 인간의 실존적 고뇌에 대해서도 남달리 민감한지도 모른다. 다음은 Isa의 예민함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력까지 보여준다.

이자벨라는 자일즈가 입밖에 내지 않은 말을 미루어 알고 있었다. 그래, 그가 성도착자이면 어떻다는 말인가? 왜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심판하는가? 우리가 상대방을 제대로 알거나 하나? 여기서, 그리고 지금은 아니다.

Isabella guessed the word that Giles had not spoken. Well, was it wrong if he was that word? Why judge each other? Do we know each other? Not here, not now. (p.76)

연애결혼을 했고, 귀여운 두 자녀의 아버지이며, 지금도 그녀가 사랑하고 있는 남편 Giles와의 관계의 궁극적인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의 소유자로 그녀는 작품의 서두에서부터 묘사된다.

그녀의 물갈퀴가 달린 다리도 주식 중개인인 남편에 얽혀 있었다.

and she too, in her webbed feet was entangled, by her husband, the stockbroker. (p.10)

결혼이 아름다운 무지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여러가지 제도중의 하나임을 위의 인용문에서 보드시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다.

열열히 서로 사랑해서 맺어진 두 사람이지만(스코틀랜드의 낚시터에서 연어를 낚다가 만난 것으로 되어있음) 세월이 흐르면 이러한 사랑도 희석되게 마련인 모양이다. 주식 중개인인 Giles는 주중에는 주로 런던에서 일하고 주말에나 집에 오는데, 그는 런던에서 Mrs. Manresa와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되었고, Isa도 회색옷을 입은 남자, 말이 없고 로맨틱하며 세파에 찌든 농장 경영주인 루퍼트 해인즈 씨 Mr. Rupert Haines를 멀리서 사모한다.

옷매무새를 고치고 자세히 보면서 그녀는 잔등이들 사이로, 어깨들 넘어로, 회색옷을 입은 그 남자를 열심히 찾았다. 어느 테니스 파티에서 그는 그녀에게 차 한 잔을 권한 적이 있었고, 라켓을 한번 건네준 적이 있었다. 이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녀는 연어가 은빛기둥처럼 튀어 오르기 전에... 우리가 만났더라면 ...전에 만났더라면 하고 울부짖고 있었다. 그녀의 어린 아들이 햇간에서 힘들게

사람들을 헤치고 나왔을 때 “저 애가 그의 아들이었으면,” 하고 그녀는 중얼거렸다.

Preening and peering, between backs, over shoulders, she had sought the man in grey. He had given her a cup of tea at a tennis party; handed her, once, a racquet. That was all. But, she was crying, had we met, she was crying, had we met before the salmon leapt like a bar of silver... had we met, she was crying. And when her little boy came battling through the bodies in the Barn “Had he been his son,” she had muttered... (p.243)

테니스 파티장에서 그녀에게 차 한잔을 권했던 신사, 테니스 라켓을 딱 한번 건네준 일이 있는 회색옷의 그 신사를 진작 만나지 못한 것을 그녀는 못내 아쉬워 한다. Isa는 아이들의 아버지로서의 남편에 대한 애정과 그녀의 내면적인 욕구에 의한 또다른 애정사이에서 번민한다.

Isa는 시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시를 쓰기도 하는데, 이 사실을 남편이 알까봐 장부같이 생긴 공책에다 시를 쓴다. 여권신장론적(feministic) 글에서는 이 점을 확대시켜서 조명하게 될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의 가정이라는 일종의 감옥에서 여자의 몫으로 지어진 일 이외의 일을 하는 것이어서 그녀가 시를 감추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시를 좋아하는 로맨티스트 Isa의 편모를 드러낸 다음 인용문은 이미지 구사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시적이고 아름답다. Mr. Oliver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회상하다가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바이런 Byron시집 한권을 준 사실을 떠올린다. 이 회상이 빌미가 되어서 그는 다음과 같은 두개의 식귀를 읊조리게 되는데, 이 사랑의 식귀에 대한 Isa의 정신적인 반응이 대단히 아름답고 로맨틱하다.

그녀는 밤 하늘처럼 아름답게 걷는다.” 그는 인용했다.

그리고는 또다시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이리하여 우리는 달빛을 받으며 더 이상 배회하지 않으리.”

아이자는 그녀의 머리를 들었다. 이 딸들이 두개의 완벽한 원을 만들었다. 이 원들이 그녀와 헤인즈를 두마리의 백조와도 같이 물결을 타고 내려가게 했다. 그러나 그의 눈처럼 흰 가슴에는 더러운 좁게구리밥(식물 이름)이 열기설기 붙어 있었고, 그녀의 물갈퀴가 달린 발에도 주석 중개인인 남편이 얽혀 있었다. 그녀는 검은 머리를 땅아 늘어트리고 의자에 흔들거리며 앉아 있었다. 빛바랜 실내복을 입고 있는 그녀의 몸은 받침대처럼 흔들거리고 있었다.

“She walks in beauty like the night,” he quoted.

Then again:

“So we’ll go no more a-roving by the light of the moon.”

Isa raised her head. The words made two rings, perfect rings, that floated them, herself and Haines, like two swans down stream. But his snow-white breast was circled with a tangle of dirty duckweed; and she too, in her webbed feet was entangled, by her husband, the stockbroker. Sitting on her three-cornered chair she swayed, with her dark pigtails hanging, and her body like a bolster in its faded dressing-gown. (pp.9-10)

그녀와 그녀의 마음속의 연인 Haines를 두마리의 백조로 떠올리고, 그 두마리의 백조가 모두 더러운 현실에 얽매인 것으로 그녀는 상상한다. 진부한 일상, 즉 윤기없는 산문의 세계에 살고 있는 그녀가 빛바랜 실내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되풀이되어 묘사된 것은 대단히 인상적이다.

Giles도 원래는 농장을 경영하고 싶어 했지만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주식 중개인이 된 44세의 남자로서, Isa와 마찬가지로, 심리적으로 늙어 빠져있는 현대인의 전형으로 작가가 제시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자신을 비접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성도착자인 William Dodge, 육욕을 대변하는 Mrs. Manresa, 그밖의 인간들 모두가 저주받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때문에 베네트 Bennett는 Giles Oliver를 1939년의 위기의식이 가장 극명하게 반영된 인물이라고 했는지도 모른다.⁶⁾ Giles는 인간의, 특히 기계문명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의 숙명을 다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강렬한 이미지를 써서 묘사하고 있다.

녹색 반지의 형상으로 몸을 꼬부린 한 마리의 뱀이 풀속에 매복하고 있었다. 죽었나? 아니다, 입 속에 두꺼비 한마리를 넣고 질식상태에 있었다. 뱀은 그 두꺼비를 삼킬 수가 없었고, 따라서 그 두꺼비는 죽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There, couched in the grass, curled in an olive green ring, was a snake. Dead? No, choked with a toad in its mouth. The snake was unable to swallow; the toad was unable to die. (p. 119)

엄밀한 의미에서는 주인공다운 주인공도 없는 작품이지만, Mr. Oliver와 Mrs. Swithin을 통해서 과학과 감성의 세계를 대비시켰다면, Isa와 Giles를 통해서 주로 남녀간의 사랑과 미움의 갈등 이외에도 문명에 오도되어서 심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을 그렸다고 할 수 있다. 연령상으로는 기타 여러가지 국면으로 미루어 보아 이 부부가 작품의 주인공들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작품의 말미에 이들이 등장해서 마무리를 짓는다.

그날 처음으로 둘이만 있게 되자 그들은 말이 없었다. 단 둘이 있게 되자 증오가 적나라하게 들어났고, 사랑 또한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잠들기전에 틀림없이 싸울 것이고, 실컷 싸우고난 후에는 포옹할 것이다. 이 포옹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지도 모른다.

Left alone together for the first time that day, they were silent. Alone enmity was bared; also love. Before they slept, they must fight; after they had fought, they would embrace. From that embrace another life might be born. (pp. 255-56)

야외극 공연이 끝나고, 모였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다음 이들은 그날 처음으로 단둘이 있게 된 것으로 작품은 끝난다.

야외극이 공연되는날 예기치 않게 Pointz Hall에 들이닥친 사람들로 묘사된 Mrs. Manresa와 William Dodge라는 인물들도 대단히 상징적인 인물들이다. Mrs. Manresa는 45세의 여자로서 돈많은 유대인과 결혼했으며, 생기발랄하지만 하는 것이 천하고 지나치게 색정적이고 야한 인물로 그려졌다. 소위 문명이라는 안경을 끼고 바라다볼 것 같으면 확실히 이 여인은 천하다. 그러나 포레스키 Poresky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⁷⁾ 이른바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부과되는 족쇄를 그녀가 과감하게 깨버리기 때문에 그녀는 사람들로 하여

6) Joan Bennett, *Virginia Woolf: Her Art as a Novelist* (Cambridge: The University Press, 1964), p. 122.

7) Louise A. Poresky, *The Elusive Self: Psyche and Spirit in Virginia Woolf's Novels* (London and Toronto: Associated University Presses, 1981), p. 259.

금 신선한 느낌을 갖게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다.

그녀의 용모, 거동이 모두 천박했다. 피크닉 차림으로는 복장도 지나치게 야했고, 또한 지나치게 색정적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바람직한, 아니 적어도 소중한 자질이었던가—그녀가 말하자마자 “내가 아니라 그녀가 그렇게 말했어, 그녀가 그렇게 행동했어,”라고 누구나 생각하고, 예의범절을 어기는 것을 이용하고, 불어오는 신선한 대기를 단박하며, 얼음을 가르고 앞으로 나아가는 배를 따라 캉충캉충 뛰어가는 돌고래들처럼 그들은 그녀를 따라갈 수 있었다. 그녀는 늙은 바솔로뮤에게 그의 젊음과 풍취를 다시 돌려주지 않았는가?

Vulgar she was in her gestures, in her whole person, over-sexed, over-dressed for a picnic. But what a desirable, at least valuable quality it was—for everybody felt, directly she spoke, “She’s said it, she’s done it, not I,” and could take advantage of the breach of decorum, of the fresh air that blew in, to follow like leaping dolphins in the wake of an ice-breaking vessel. Did she not restore to old Bartholomew his spice islands, his youth? (p.52)

다시 말해서 Mrs. Manresa는 소위 문명의 발전이라는 개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인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틈만 있으면 머리를 매만지고 화장을 고치는 이 여인에게서 색정보다는 연민을 느끼게 그려놓은것 또한 주목해야 한다.

이 여인과 함께 온 William Dodge라는 인물은 Mrs. Manresa와 좋은 대조를 이루는 인물로써(Mrs. Manresa는 외향적이고 Dodge는 내향적) 비극적으로 그리고 가련하게 그려졌다. Mrs. Manresa가 그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술가라고 소개하는데, 그는 이를 극구 부인한다. 이들 두 사람이 작품속에 유기적으로 끼어들게 하는 장치로 야외극이 공연되는날 우연히 들이닥쳐 구경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약하다. 따라서 Mrs. Manresa를 Giles의 정부(mistress)로, 그리고 Dodge를 Isa와 잠시나마 동병상련관계에 있게 함으로써 작가는 이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조성한다.

실은 Giles부부, Dodge, Mrs. Manresa, 모두 근본적으로 내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고뇌하고 있는 현대인을 나름대로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Dodge가 분리주의자가 아니라 통합주의자인 Mrs. Swithin을 붙들고 자기의 고뇌를 하소연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는 그녀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에 키스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어했다. “학교 다닐때 친구들이 내 머리위에 더러운 물이 담긴 바켈을 썩워 놓았었어요, 스와이딘 부인, 내가 울려다 보니까 세상은 온통 지저분했어요, 스와이딘 부인, 그래서 저는 결혼을 했지요. 그러나 우리 아이는 제 자식이 아니에요, 스와이딘 부인. 저는 사내구실을 못해요, 스와이딘 부인. 자일즈가 본 바 대로 저는 잔디밭에서 명멸하는 정신착란증 환자인 작은 뱀입지요. 그러나 당신이 제 병을 고쳐 주셨어요.”

And he wished to kneel before her, to kiss her hand, and to say: “At school they held me under a bucket of dirty water, Mrs. Swithin; when I looked up, the world was dirty, Mrs. Swithin, so I married; but my child’s not my child, Mrs. Swithin. I’m a half-man, Mrs. Swithin; a flickering, mind-divided little snake in the grass, Mrs. Swithin; as Giles saw; but you’ve healed me....” (p.90)

그녀의 남편과 Mrs. Manresa의 관계를 어렵듯이 눈치채고 있고, 그녀가 사모하는 Haines를 찾기 어렵게 되자 Isa는 그녀와 유사한 감수성의 소유자인 Dodge와 잠시 가까워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3. 문명과 자연

지각있는 많은 작가가 그랬드시 Woolf도 문명이라는 이름의 괴물이 우리 인간의 삶을 타락시키고 파괴한다고 굳게 믿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온전한 삶을 영위해야 할 인간을 문명이 심리적으로 무참하게 바스러진 부스러기(orts, scraps, and fragments)의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경고하고, 삶의 비존을 지닌 예술가와 같은 존재들이, 그 작업이 아무리 힘들어도, 심리적으로 파편조각이 된 인간들을 다시 온전한 존재가 되게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리하여 Miss La Trobe가 야외극을 준비하는 장소는 자연속이고, 그녀는 그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연극, 음악 등을 통해서 관중에게 영감을 주려고 애를 쓴다.

야외극의 저자이며 연출가인 Miss La Trobe의 초상은 *Lighthouse*의 릴리 브리스 코우 Lily Briscoe나 *The Waves*의 버나드 Bernard를 통해서 보여준 예술가의 초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우선 출신도 수상한 것으로 그렸고(그녀에게는 러시아의 피가 섞여 있다. *She had Russian blood in her*, p.72), 다방을 경영하다 실패했느니, 여배우 노릇을 하다 실패했느니 하는 소문이 떠도는 인물로 묘사했다.

의양도 거칠고 조야한 것으로 되어있다. 현대와 같은 시대에는 예술가도 고상한 의양을 지닐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대와 같은 위기의 예술가는 모름지기 전투적이어야 함을 알리기 위한 것인지 다분히 작가의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Miss La Trobe를 묘사하고 있다.

그녀는 가무잡잡하고 건장하고 땅딸막했다. 그녀는 작업복 차림으로 들판을 활보하고 다녔고, 때로는 입에 담배를 물고 다녔으며, 자주 손에 채찍을 들고 다녔다. 또한 그녀는 독설가였다. ...그러나 어쩌면 이 여인은 귀족이 아닐런지도 몰랐다. 여하간 그녀는 일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데는 남다른 정열을 지니고 있었다.

Outwardly she was swarthy, sturdy and thickset; strode about the fields in a smock frock; sometimes with a cigarette in her mouth; often with a whip in her hand; and used rather strong language—perhaps, then, she wasn't altogether a lady? At any rate, she had a passion for getting things up. (p.72)

그러나 이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Woolf는 현대의 작가상이 귀족적(ladylike)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아쉬움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외모나 언행이 조야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로서의 정열의 온도에는 이상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예술가인 그녀와 관중의 관계는 Isa와 Giles의 관계가 그랬드시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는 것으로 그려 놓았다.⁸⁾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Miss La Trobe가 자연과 친밀한 존재이고, 삶에 내재해 있지만 아무에게나 보이지는 않는 통일성을 알아차릴 수 있는 존재이고, 따라서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존재로 그려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녀가 이따금 독재적(bossy)인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하겠다.

저 넘어에 있는 나무뒤에서 라 트로우브 양은 이를 갈았다. 그녀는 그녀의 원고를 꾸겨 버렸다. 배우들이 꾸물뒀던 것이다. 그들이 꾸물거릴때마다 관중은 울가미에서 빠져 나가 조각조각 흩어졌다.

8) Madeline Moore, *The Short Season Between Two Silences: The Mystical and the Political in the Novels of Virginia Woolf* (Boston: George Allen & Unwin, 1984), p.163.

Over there behind the tree Miss La Trobe gnashed her teeth. She crushed her manuscript. The actors delayed. Every moment the audience slipped the noose; split up into scraps and fragments. (p.145)

Miss La Trobe는 뿔뿔이 흩어지려는 관중을 예술을 매체로 묶어 주려고 기를 쓴다.

애써 하나로 묶어 놓았던 관중이 막간에 다시 뿔뿔이 흩어지면 그녀는 구슬땀을 흘리며 몹시 괴로워 한다.

무대는 비어 있었다. 라 트로우브 양은 마비된 채 나무에 기대어 있었다. 그녀는 힘을 완전히 잃었다. 구슬땀이 그녀의 이마에 방울방울 맺혀 나왔다. 환상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았다. “이건 죽음이야, 죽음이냐 진배 없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And the stage was empty. Miss La Trobe leant against the tree paralyzed. Her power had left her. Beads of perspiration broke on her forehead. Illusion had failed. “This is death,” she murmured, “death.” (p.165)

예술가로서 그녀가 관중에게 자기의 비존을 전달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눈물겨울 지경이며, 또한 그녀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관해서 회의하기도 한다.

이들을 얼마나 오랜동안 묶어 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하나의 도박, 하나의 모험이었다.

How long would time hold them together? It was a gamble; a risk. (p.177)

다행히 자기의 비존이 관중에게 전달된 것을 알았을 때 예술가는 한아름의 영광을 안게 된다. 통합주의자인 Mrs. Swithin이 Miss La Trobe의 메시지를 파악하고 그 느낌을 다음과 같이 알렸을때

“나는 여지껏 대단히 작은 역할을 맡아 해 왔어요. 그러나 당신은 나로 하여금 내가... 클레오파트라역의 역이라도 하려면 할 수 있었으리라고 느끼게 해주었어요.”

“What a small part I’ve had to play! But you’ve made me feel I could have played... Cleopatra!”

Miss La Trobe는 Mrs. Swithin이 어실프게 표현한 것을 다음과 같이 세겨 듣고 기뻐한다.

“나는 클레오파트라의 역할도 하려면 할 수 있었어요,” 라 트로우브 양이 되 받아서 말했다. “당신은 나의 내면에서 내가 연기하지 않은 부분까지 자극했어요,” 그녀는 이 말을 하려 했던 것이다.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줄들을 튕겨 주었어요,”라고 노 부인은 말하려고 했던 것이다...

“I might have been—Cleopatra,” Miss La Trobe repeated. “You’ve stirred in me my unacted part,” she meant. ...“You’ve twitched the invisible strings,” was what the old lady meant; (pp. 179-80)

그녀가 예술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달한 비존은 그 성격이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범 세계적인 차원의 것이다. 따라서 이제 그녀가 느끼는 광영은 그야말로 거창한 것이다.

그녀는 영광으로 흥만해 있었다. 아아, 그러나 그녀는 개인의 심금을 울리는데 그치지 않고 배회하고 있는 몸동이들과 부유하는 목소리들을 커다란 숲에 담고 펼칠 끊여서, 그 부정형의 덩어리로부터 세계를 재창조해 내었던 것이다. 그녀는 영광의 순간을 만끽했다.

Glory possessed her. Ah, but she was not merely a twitcher of individual strings; she was one who seethes wandering bodies and floating voices in a cauldron, and makes rise up from its amorphous mass a recreated world. Her moment was on her—her glory. (p.180)

그러나 성공을 거두었을 때의 영광이 거창한 것에 비례해서 실패했을 때의 좌절감 또한 대단하다.

손가락으로 나무 껍질을 긁어대며 그녀는 관중을 저주했다. 그녀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 했다. 이진 죽음이거나 진배 없어, 환상에서 깨어나면 곧 죽음이야, 하고 그녀는 그녀의 두뇌의 한쪽 구석에 기록했다.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그녀는 관중을 마주한 채 서 있었다.

Grating her fingers in the bark, she damned the audience. Panic seized her. Blood seemed to pour from her shoes. This is death, death, death, she noted in the margin of her mind; when illusion fails. Unable to lift her hand, she stood facing the audience. (p.210)

B. 야외극과 막간

1. 야외극

야외극(The Pageant)은 256페이지 짜리 소설 94페이지에 등장한다. 다시 말해서 작품의 중심부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 극의 개막사는 이태릭체로 되어 있다. 극이 초오서 Chaucer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영국의 의식(意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극에 등장하는 첫 인물이 “나는 영국이다”(England am I)라고 말하며 등장한다. 이 극에서 음악이 극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걸으로 드러난 이 야외극 공연 목적은 교회에 전등을 설치할 기금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익금은 교회에 전등 설치 자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뿌연 복사본에 써있는 것을 아이자는 소리 내어 읽었다.

“The profits,” Isa read out from her blurred carbon copy, “are to go to a fund for installing electric light in the church.” (p.206)

여기서 우리는 이 작품이 상징으로 충만한 소설이지만 소설로서의 개연성에 대해서도 작가가 충분히 배려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야외극에서는 처음에 증세를 다루면서 그때는 영국인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경건한 신앙심을 지니고 살았던 것으로 그려놓고 있다. 그러다가 엘리자베스 조에 와서 영국인이 자연과 종교를 버리고 물질적인 풍요를 자연과 종교의 자리에 올려놓게 된다. 일단 인간이 물질적인 것을 정신적인 것보다 높은 자리에 갖다 놓게 되면 인간은 신보다 자신을 더 중요시하게 된다. 따라서 신앙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는 이성이 들어앉게 된다. 이리하여 증세의 삶, 즉 자연 그리고 신과 하나가 되어 조화롭게 사는 삶은 붕괴하게 된다. Poresky는 인간의 이른바 의지라는 것과 이성이라는 것이 인류를 부유한 계층과 가난한 계층으로 쪼개 놓는다고 한다.⁹⁾

이렇듯 쪼개지기 시작한 인간은 계속 쪼개지고 또 쪼개져서 현대인은 부스러기(orts, scraps and fragments)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실을 펴 풀어볼

9) Poresky, p.256.

수 있는 예술가가 산산히 부서진 현대인들을 예술을 매개체로 해서 다시 쫓어모아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온전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신앙심도 지니고, 파편이 아닌 전체로서 충족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야외극은 덩블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정체불명의 목소리로 끝나고 있는데, 이 목소리는 이 극의 메시지를 요약한다. 이 메시지는 작품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 극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이 작품 전체의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시대가 변함에 따라(중세, 엘리자베스 조, 빅토리아 조, 현대) 표면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만 한가지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아닌 인간이 지니고 있는 사랑의 잠재력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Woolf의 작품가운데서도 유난히 비극적인 작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잠재력의 존재를 작가가 믿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 믿고 있었다기 보다는 희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믿음이었던 희망이었던 이것에는 잠고 늘어질 것이 없고, 실제로 희망 반 믿음 반의 모습으로 우리를 헛갈리게 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의 인용문은 이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로 하여금 삶에 대해서 낙관하게 해주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한다. 예컨대 우리가 고양이를 귀여워 하는 일이라던가, 오늘 신문의 기사중에서 “그의 아내가 끄적이 사랑했던”이라는 구절이라던가, 한 밤중에 우리로 하여금 창가로 가서—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콩밭 냄새를 맡게 하는 충동과 같은 것들이다. 혹은 여드름 투성이의 무지렁이와 같은 인간도 영혼을 파는 일 만한 단호히 거절한다든가 하는 일. 이 세상에는 이와같은 것이 있다. —아무도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무어라고? 이런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당신 눈에 보이는 것은 산산히 부서진 파편 조각들 뿐이라고? 좋아요, 그러면 축음기에서 흘러 나오는 증언을 잘 들어 보도록 해요.

there's something to be said: for our kindness to the cat; note too in today's paper "Dearly loved by his wife"; and the impulse which leads us—mark you, when no one's looking—to the window at midnight to smell the bean. Or the resolute refusal of some pimpled dirty little crub in sandals to sell his soul. There is such a thing—you can't deny it. What? You can't descry it? All you can see of yourselves is scrpas, orts, and fragments? Well then listen to the gramophone affirming. (pp. 219-20)

독립된 극이 이 소설에 예술적으로 무리없이 끼어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요 등장인물들이 야외극을 구경한다는 커다란 테두리 말고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작가가 취했다. 즉 한 막이 끝날 때마다 그 극의 여운이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의 의식에 메아리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전 작품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야외극이 점진적으로 작품의 모든 중요한 테마들에 촛점을 맞추게 처리되어 있는 것이다.

2. 막 간

소설 113페이지에 야외극의 첫 막간이 등장한다. Miss La Trobe는 극의 공연을 통해서 어렵게 한테 모았던 관중이 이 막간에 그녀의 통제밖으로 나가 견잡을 수 없이 흩어져 버리는 것을 애통해 한다.

이제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막간이었다. ...관중의 노예인 그녀, ...

Here was her downfall; here was the Interval.... a slave to her audience,... (p. 113)

잠깐동안,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극이 공연되는 동안 25분간은 Miss La Trobe가 뿔뿔이 흩어지려는 관중을 한데 묶어놓고 삶에 대한 비존을 전달할 수 있었다. 이 비존은 그들을 고뇌에서 구해줄 값진 것이다. 그러나 한 순간 밖에는 그들을 잡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잠시동안은 그녀가 그들을 묶어 놓았었다.—이제 흩어지고 있는 저들을. 25분동안은 그녀가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지 않았던가? 그들에게 전한 비존은 그들을 고뇌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이었다. ...잠시지만...잠시이긴 하지만.

still for one moment she held them together—the dispersing company. Hadn't she, for twetny five minutes, made them see? A vision imparted was relief from agony...for one moment... one moment. (p.117)

극의 막간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간 인물들은 그때부터 다시 인생이라는 코미디를 공연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마지막 문장 “그때 막은 오르고 그들은 대사를 읊조리기 시작했다”(“Then the curtain rose. They spoke”)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겠는데, 다음과 같은 해석도 가능하다. 즉 Miss La Trobe의 야외극 전체가 막간이고, 저 태고적부터 오늘날까지 공연되어 오고 있는 Isa와 Giles가 연출하는 사랑과 미움의 극이 이제 바야흐로 막을 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1939년 9월에 세계 제 2 차 대전이 일어났으니까 이 소설을 쓰던 시기는 1차대전(1914~18)과 2차대전(1939~45) 사이의 막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의 결말부분에 대한 또 한가지 가능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것인데, 또다시 Poresky의 지적이 이 점에 많은 빛을 던져준다. 즉 궁극적으로 부스리기로 전락한 상태에서 생존해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은 우선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해놓기 이전의 상태, 즉 인간의 자연귀의적이고 원시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어둠속으로 들어가서 그 옛날 지냈던 조화와 평화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옛날의 통일성 내지 평화를 되찾으려면 현대인의 특성이 되어버린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제거하고 이 자아가 주입시키는 공포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다.¹⁰⁾

그러므로 Isa와 Giles는 그들의 자아들로 하여금 서로 싸워서 그 자아들이 자멸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자아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사랑의 힘이 들어선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막을 올리고 인간의 새 역사, 사랑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흥미로운 해석이고 Woolf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또한 여권 신장론자들은 남녀로 갈린 대립의 목소리가 아닌 새로운 목소리의 역사가 바야흐로 전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어쨌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풍요로운 결말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III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작품에서 작가는 약 하루라는 기간에 일어난 그야말로 보잘 것없는 일상의 단면을 그리고 있다. 작품의 서두에서 중요한 인물들 그리고 주제들이 선을 보이면서 야외극이 끼어 들어온다. 야외극에는 또 극중극이 삽입되어서 구성의 묘미를 돋구어 놓고 있다. 극의 한 막이 끝날 때마다 막간이 있다. 이 막간에 극을 구경하던 등장인

10) *Ibid.*, p.262.

물들은 다시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극을 보기전과 같은 상태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극을 보고 느낀 것과 극에서 벌어진 일들이 그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며 메아리치고 있는 상태에서 돌아간다. 극이 끝나고는 극때문에 한테 모였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Pointz Hall의 식구들도 각각 잠자리에 든다. 이때 그날 처음으로 단둘이 있게 된 Isa와 Giles는 우선 싸워야 한다고 되어있다. 피상적으로는 어찌면 이른바 권태기에 들어서서 서로 한눈을 팔았으니까 당연히 싸울 것이다. 심하게 싸우고 나서는 카타르시스도 되고 역설적으로 옛날의 사랑도 되살아나서 다시 서로 열열히 껴안고 사랑을 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 사랑의 결과 새 생명이 태어날지도 모른다고 한다. 모두가 상징적인 차원의 이야기지만 물리적으로도 가능한 이야기이다. 이 사실은 작가가 소설의 개연성 차원과 상징적 차원을 병행시켰음을 알려준다.

그 다음에 문제의 마지막 행이 등장한다. 이 행은 야외극을 포함한 앞의 모든 것이 막간이었고, 이제사 바야흐로 인생이라는 연극이 시작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와같이 기교면에서 볼때 작가가 능수능란하게 재주를 부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홉번째 소설, 작가가 자살을 하지 않았더라면 마지막 작품이 아닐 수도 있었겠지만, 그녀의 마지막 작품에서 이 정도의 묘기를 보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시점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전통적인 소설작법에 반기를 높이 들고 실험을 계속한 다음 소위 의식의 흐름 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소설을 탄생시킨 주역의 한 작가인 Woolf의 창작과정의 족적(足跡)이다. 다시 말해서 과연 그녀는 의식의 흐름 소설이라는 소설 양식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했는가 하는 점이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대답은 ‘아니오’이다. 이 세상에 완전무결한 것이란 있을 수 없다는 상식적인 이야기나 Woolf와 같은 예술가는 부단히 실험을 계속하게 마련이라는 점에 기대지 않더라도 그녀가 처음부터 의식의 흐름 수법에 만족하지 못하고 실험을 거듭한 것은 명백하다. Joyce의 작품에 대해서 양미간을 찌프리고 불만을 토로한 것도 그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그녀의 작품들을 다시 개관해 보면 *Jacob's Room*에서 본격적으로 실험을 하고나서 *Mrs. Dalloway*, *Lighthouse*와 같은 의식의 흐름 소설로서의 수작을 내놓고, *Orlando*에서 잠깐 셋길로 빠졌었다.

*Mrs. Dalloway*나 *Lighthouse*가 예술적으로는 대단히 정교한 작품이지만 정적이고, 활력이 결여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Orlando*는 가벼운 터치와 환타지로서 엄밀한 의미에서 의식의 흐름 소설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인데, 정교한 예술적 측면에서는 앞의 두 작품에 미치지 못하지만 확실히 활력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다소 성급한 추론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20세기 초에 일군의 작가들이 추구한 인간 내면세계의 진실을 표출하기에는 의식의 흐름이라는 수법이 종래의 수법보다 효과적일런지는 모르지만 추구하는 세계의 성격 자체가 그래서인지 확실히 이 수법을 구사한 작품에 활력이 부족하다. 이 점을 의식하고 있던 Woolf는 의식의 흐름 소설의 약점을 보완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내놓은 *BTA*에서 우리는 본격적인 ‘타협’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 즉 근간은 의식의 흐름 소설인데, 야외극이라는 사실세계를 교묘하게 예술적으로 무리없이 삼입시켜서 의식의 흐름 소설의 중요한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생각된다. 야외극의 삼입 이외에도 다른 작품에서 보다 ‘사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대화 가운데도 실제로 인물들이 주고 받을 수 있는 성격의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아 차릴 수 있다.

또 한가지 작가로서의 Woolf의 생애에서 주목을 요하는 사실은 소위 의식의 흐름 소설을 쓸때에는 작가가 대단히 긴장하고 극심한 고뇌를 겪는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흔히 지적되고 있는 의식의 흐름 작품의 난해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거의 늘 의식의 흐름 수법의 작품을 쓴 다음에는 머리를 식히느라고 Woolf는 가벼운 터치에 글을 쓰곤 했다. *The Waves*를 쓰고난 후에 복고적이라고 할 수 있는 *The Years*를 쓴 것도 그 한 예이다. 그러므로 의식의 흐름 소설의 난해성이라는 문제점은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본질적으로 무질서한 인간의 내면세계를 있는 그대로 그리면서 거기에 예술적인 패턴을 부여하는 작업이 고뇌스러울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고, 또 이렇게 태어난 작품이 난해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 난해성이라는 문제점의 해결은 독자편에서 감수성 연마 내지 이러한 작품을 읽는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성격의 문제라고 하겠다.

이제 의식의 흐름 소설은 불란서의 누보 로망과 같은 형태의 소설의 밑바침 구실도 했고, 현대 소설 전반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으며(심지어는 반 모더니스트들에게도), 소설이라는 장르의 영토를 확장하여, 산문을 시의 경지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앞으로 이 장르는 계속 Woolf과 같은 작가들에 의해 보완 활용되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의식의 흐름 소설의 위치는,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단서가 붙기는 하지만, 확고하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전 작품의 집대성적인 시도를 엿볼 수 있는 이 소설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즉 세계대전중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을 정도의 위기에 이르러서도 Woolf가 인생을 관조하는 자로서의 평형감을 잃지 않고, 작품의 예술적 완벽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Works Cited

- Bell, Ann Olivier (Ed.). *The Diary of Virginia Woolf*. Vol. V. London: The Hogarth Press, 1964.
- Bennett, Joan. *Virginia Woolf: Her Art as a Novelist*. Cambridge: The University Press, 1964.
- Erye, Northrop. *Anatomy of Criticism: Four Essay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 Moody, A.D. *Virginia Woolf*. New York: Grove Press, Inc., 1963.
- Moore, Madeilne. *The Short Season Between Two Silences: The Mystical and the Political in the Novels of Virginia Woolf*. Boston: George Allen & Unwin, 1984.
- Muir, Edwin. *The Listener*. July 24, 1941.
- Poresky, Louise A. *The Elusive Self: Psyche and Spirit in Virginia Woolf's Novels*. London and Toronto: Associated University Presses, 1981.
- Woolf, Virginia. *Between the Acts*. London: The Hogarth Press, 1976.